

성악 초등부

홍승연 광주교대 교수

순수함 묻어난 무대 큰 울림

대회 심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 대회에서도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바른 호흡과 발성으로 가락 안에 숨겨진 음정과 리듬을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연주해 냈다.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었다. 음정이 부정확하게 표현되거나 피아노와 노래 소리의 앙상블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목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피아노와 앙상블을 이루는 속에서 어 린이다움과 동요의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더 공감이 되고 울림을 줬다.

성악 중·고등부

임해철 호신대 교수

정제되지 못한 발음 '옥에 티'

63년 전통의 호남예술제는 광주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이번 성악 중·고등부 경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줬다.



성악은 발음의 예술이다. 악기 연주는 선율, 리듬, 화성으로 멋진 음악을 표현하는데 반하여 성악은 발음의 요소가 추가된다. 그리고 성악 발음의 예술을 디క్ష너라 부른다.

관악

김동수 성신여대 교수

우리나라 서양음악연주 성장 실감

우리나라 서양음악연주는 눈부시게 성장해왔고, 이 같은 성장은 올해 콩쿠르에 참여한 학생들의 연주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고교년부터는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들을 지도해준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성장가능성은 향후 국내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어떠한 연주자가 될 수 있을지를 가능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특히 성장가능성은 향후 국내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어떠한 연주자가 될 수 있을지를 가능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현악

임봉순 삼육대 교수

전주·간주 시간 감안 곡 선택 필요

올해 경연의 현악분야에서는 바이올린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분야의 지원자는 눈에 띄게 적었다.



또 참가자들의 나이와 학년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렵고 난해한 곡들을 선택해 연주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다.

개인으로 아쉬운 것은 시간이 모자라서 곡 중간에 멈춰야 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전주와 간주부분들을 간소화하고 짧은 시간에 다양한 음악적 재능들을 평가받을 수 있는 곡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피아노 초등부

이훈진 세한대 교수

손가락 훈련 통해 옥타브 연주 신경써야

초등 1·2학년부에서 몇몇 경연자들은 나이답지 않은 안정적인 연주를 들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연자들은 평균 이상의 실력을 보여주어 한국 피아노음악의 밝은 미래를 시사했다.



초등 5·6학년부 경연에서는 모차르트 변주곡을 선택해 연주한 몇몇 경연자들에게서 초등학생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모차르트 음색을 들을 수 있었다.

전체 경연에서 아쉬웠던 점은 체구로 보았을 때 옥타브 연주가 가능하다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레 포기하고 손을 벌리지 않는 경연자들이 몇 있었다는 점이다.

손은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 진화한다. 만약 도저히 옥타브 연주가 불가능하다면 우선 손가락의 움직임이 많은 작품을 선택하여 손가락 사이의 공간을 인지하며 입체적인 소리를 만들어 내는 훈련을 시작하기 바란다.

피아노 중·고등부

김신영 목포대 교수

테크닉 뛰어난 반면 템포·리듬 아쉬워

제 63회 호남예술제 피아노 부문 고등부는 어려운 지정곡이 선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호남예술제 지정곡 중 베토벤 '소나타 Op.53, 제1악장'을 연주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난이도 높은 테크닉과 음악적 표현을 요구하는 슈만의 '소나타 Op.22, 제1악장'과 파가니니의 'Etude, No.6'을 연주하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고난도의 테크닉적인 처리가 뛰어난 학생들이 눈에 띄는 반면 일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음악에서 요구하는 템포, 리듬, 아티클레이션 등이 미흡한 연주를 보여주어 안타깝기도 했다.

앞으로 호남지역의 문화 수준이 계속적으로 향상되길 바라며 음악 애호가들이 음악을 향유하는 밝은 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음악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꾸준한 연구와 관심을 기대해 본다.

한국무용

허순선 광주대 교수

창작춤 참가자 과반수 '고무적'

한국무용은 한국 문화에 기반을 둔 예술의 춤, 호흡의 춤, 여백의 춤, 절제의 춤, 철학의 춤, 과학의 춤, 그리고 건강을 수반한 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번 호남예술제 한국무용 대회에서 전통춤보다 창작 춤에 더 많은 수가 참가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창의적이고 시험적인 춤이 추어지고 그 후에 전통춤이 추어진다

본 대회에서 아쉬운 점은 한국무용을 사랑하는 인구가 줄어가고, 군무가 거의 취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걸맞지 않게 비싼 의상을 준비해야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 분들로 인하여 우리 한국 무용계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현대무용

임지형 조선대 교수

같은 학원 소속인 듯한 안무 씬쓸

순수예술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과거 많은 수의 참가자들이 몰렸던 호남예술제에 초·중·고등부를 통틀어 현대무용 참가자가 현저히 감소한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초등부 현대무용 참가자들의 기량은 눈에 띄게 향상됐으나 작품이 어린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게 추상적이고 표현양식이 연령에 비해 성숙하다는 점이 아쉬웠다.

한편 고등부에서는 참가자 6명 전원이 같은 무용학원 소속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작품의 구성과 춤 색깔, 의상의 형태가 비슷했다. 그 외 중주 참가팀들 또한 알보로 음악적 표현력과 수준이 많이 향상된 훌륭한 연주였다.

실용무용부문에서는 성인들의 선정적인 춤 동작을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초등부 발리댄스의 지도방식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확고한 합창 부분 참가자들의 뛰어난 테크닉과 작품성을 높이 사고 싶다.

발레

최태지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초등 창작 발레 참가자 감정 표현 '탁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이자 역사 깊은 호남예술제의 심사를 맡게 돼 무용수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을 볼 수 있어 기뻐했다.



초등부 저학년 창작발레에 참가한 학생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개성이 돋보일 수 있도록 작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다.

중·고등부 학생들 중 테크닉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감정 표현에 소홀한 참가자들이 더러 있었다.

전반적으로 훌륭한 신체조건을 갖추고 우수한 음악성과 표현력으로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참가자들이 많았다.

입상 결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참가자들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가한 모든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며 정진을 기원한다.

국악

서담 전남도립대 교수

사물놀이·가야금병창 열정 무대 감동

국악분야는 매우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경연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학생이고 아마추어인 것을 가끔씩 잊게 할 만큼 자기주도적인 음악적 표현과 완성도 그리고 연주 자세로 갖추어야 하는 태도를 선보였다.



경합률이 높지 않은 관계로 단체일 경우는 전곡을 모두 들을 수 있었으며, 참가자 수가 비교적 많은 사물놀이와 가야금병창의 경우 지도자의 역량과 참여자가 협력하여 하나 된 열정이 드러나는 감동적인 무대를 보여줬다.

또한 개인 실장구 및 소고놀이에서는 음악성이 우수해 전공으로써의 장래성이 있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기악분야의 창작곡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가야금창작곡이 많았으며 개량가야금곡을 12현가야금으로 표현한 점은 창의적이었다.

다만 창작곡이 많다보니 오랜 연륜을 요하는 대표 기악특주곡인 '산조'연주의 비중이 줄어들 아쉬움이 남았다.

합창

박호진 광주합창총연합회장

시각적 효과보다는 하모니 본질 살리길

합창음악은 여러 번 반복에 의해 잘 훈련된 목소리로 화음을 만들어 노래하는 예술이다.



소리 내는 방법 중 두성발성과 육성발성이 있는데, 둘 다 가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그런데 주의 할 것은 육성으로 훈련된 합창단은 소리를 절제해야 시끄럽게 안들리고, 두성발성을 하는 합창단은 호흡훈련을 잘해 앞으로 내야 소리가 작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합창의 본질은 하모니에 있는데, 요즘은 서서 부르는 합창에서 움직임이 취 시각적 효과를 내려고 한다. 합창소리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동작에 치중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발음에 있어서 자음은 강하게 해 가사의 의미를 전달하고 긴 모음을 노래할 때는 음정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예민하게 듣고 음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합창음악은 사회성을 기르는 활동이므로 초·중등학교에서 더욱 활발하게 지원되며, 가르치는 선생님들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합주·중주

김연주 초당대 교수

눈부신 기교·풍부한 음색 다채

합주와 중주 음악은 창조와 재창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작곡가들에 의해 창조된 작품을 재창조 연주하는 음악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마음껏 표현하는 매력적인 음악 연주이다.



이번 콩쿠르를 심사하면서 다양한 연주 스타일을 접할 수 있었다. 중후하고 짜임새 있는 안정된 연주, 일사분란하게 생동감 넘치는 연주, 눈부신 기교와 각 파트별로 정교정돈된 풍부한 사운드,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 등 다양한 무대를 만났다.

특히 전단원이 암보 연주하고 음질, 음감, 악상 등 악보에 지극히 충실하며 웅장한 화음과 서정적 멜로디를 선보인 팀도 있었다. 그 외 중주 참가팀들 또한 알보로 음악적 표현력과 수준이 많이 향상된 훌륭한 연주였다. 지도선생님들의 지도력과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번 호남예술제를 통해 지역 문화의 큰 발전과 인재육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큰 문화의 장을 만들기를 기대해본다.

실용음악

배창희 남부대 교수

프로 못지 않은 재즈 피아노 실력

광주 문화예술의 시작은 호남예술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직 실용음악부문이 시작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 해본다.



이번 63회 호남예술제 실용부문에도 전년도에 비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좋은 경연대회를 보여주었다. 음악 수준 또한 지난 대회에 비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주요 심사는 각 학년에 따른 경연작품의 난이도, 연주 기량, 표현력,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을 얼마나 잘 하였는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미술

안승민 서양화가

순위 정할 수 없는 도화지 위 보석들

이번 경연의 초등부에서는 자신의 꿈과 정해진 환경의 상상력, 즐거움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의식을 묻고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순수한 동심의 발상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이 보였다.



특히 상위 몇몇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구성력과 색감이 하얀 종이위에 놓인 보석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는 작품들이어서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작이었다.

초등부와는 상대적으로 중등부, 고등부는 특정한 사물의 이해도와 표현력, 추상적미가 있는 꿈을 적절한 구도로 재구성해야 하지만 작품이 적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작품의 수와 비례해 작품의 질 또한 편차가 커서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그중 몇몇의 작품에서 훌륭한 수준의 작품이 보여 아쉬움을 덜기엔 충분했다고 본다.

탁월한 구도와 표현력, 집중력, 성실성이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수상작에 찬사를 보낸다.

만화·캐릭터·일러스트

이진희 순천대 교수

빠어난 드로잉 캐릭터 '최고상 만장일치'

호남 지역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 잡은 호남예술제에서도 특히 만화와 캐릭터 일러스트 부문의 수상작들은 매년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예년에 비해 응모작 수가 적었다고는 하지만 요즘 핫한 웹툰의 영향인지 만화 캐릭터 일러스트 부문에 많은 응모가 있었다. 최근에는 높은 수준의 드로잉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 수상작을 가리는 심사위원들의 고심이 커졌다. 특히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었던 칸만화 부문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게 만들었으며 재미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이 많아 심사 내내 즐거움 고민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호남예술제의 최고상은 공교롭게도 캐릭터 부문에서 나왔는데 빠어난 드로잉 실력과 더불어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게 캐릭터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는 선택을 받았다. 이번 심사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학생들을 만나게 된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작문

박이수 소설가

세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 감탄

청소년들의 시선과 관심을 이끄는 요인이 넘치는 이 시대에 예술제에 참가해 한편의 글을 써낸 학생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탄탄한 문장력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작품들이 많았다. 특히 초등 저학년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심사위원들의 탄성을 끌어냈는데, 어린 아이들의 세계 인식이다 체험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이었다. 원고 중 간부터 끝까지 원고지 아랫부분에 '뒤에도 있어요' 라고 적은 학생의 원고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올해도 참가작품은 산문보다 운문이 많았다. 아쉬운 점을 굳이 들자면, 운문 부문에서 마무리 단계를 쉽게 처리한 작품들이 다수였다. 주제를 향해 구축한 상징성을 쉬운 결론으로 무너뜨리는 성급함은 아쉬웠다. 하지만 재미있는 동심이 돋보이는 작품, 현대인의 '감정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혼가정을 통해 보여주는 작품 등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들이 많았다. 입상하지 못한 참가자들도 꾸준히 글쓰기에 정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